

8월 14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8월 14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美 증시 "고맙다 월마트"..다우 0.3%↑	뉴욕증시가 13일(현지시간) 소매지표 부진이라는 복병을 만났지만, 뒷심을 발휘하며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음. 예상치를 웃돈 월마트의 2분기 실적이 소매지표 악재를 잠재웠고 억만장자인 존 폴슨이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주식을 매집했다는 소식도 호재가 되었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36.58포인트(0.39%) 상승한 9,398.19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63포인트(0.53%) 오른 2,009.35를,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6.92포인트(0.69%) 상승한 1,012.73을 각각 기록했음. 뉴욕증시는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약세권으로 밀리기도 했음. 기대를 모았던 7월 소매판매와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예상밖으로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실망매물이 꾸준히 출회됐기 때문임. 그러나 유통업종 대장주인 월마트가 예상치를 웃돈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점과 억만장자인 존 폴슨이 BoA 등 은행주를 집중 매집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해 매수세도 꾸준히 유입되었음. 특히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2,000선과 1,000선을 중심으로 치열한 매매공방을 벌였고, 장후반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지수들은 일제히 오름세로 돌아섰음. 소매지표 부진 영향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미국 국채 가격은 오름세를 보였음. 반면 미국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고, 국제유가는 달러화 약세를 받기며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음.
7월 소매지표 `예상밖 부진`	미 상무부는 7월 소매판매(계절조정)가 전월대비 0.1% 감소했다고 밝혔음. 이는 0.8%(수정치) 증가했던 전월은 물론이고 시장의 전망치도 크게 밑돌았고 당초 블룸버그통신이 조사한 시장의 컨센서스로는 0.8% 증가가 예상되었음. 또 `중고차 현금보상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은 자동차 판매를 제외할 경우에는 7월 소매판매 감소폭은 마이너스 0.6%로 확대됨. 이 역시 예상치를 밑돈 수준임. 자동차를 제외한 7월 판매는 당초 0.1% 가량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었음. 이는 자동차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소매판매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욱 부진했음을 보여줌.
주간 실업수당 55.8만 건..감소 전망과 달리 증가	미 노동부는 지난주(8일 마감기준)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주 55만 4,000건(수정치)보다 4,000건 증가한 55만 8,00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음. 이는 시장의 예상치와는 다른 결과로서 블룸버그통신이 조사한 시장의 예상치는 55만건이었음.

제목	주요 내용
美 7월 주택압류 다시 사상 최대..전년비 32% ↑	부동산 조사업체인 리얼티트랙은 지난 7월 한달동안 미국 전역에서 주택압류신청을 받은 주택수가 전년동기보다 32% 급증한 36만149채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보다도 6.7%가 늘어난 수치임. 특히 7월 수치는 미국의 355가구중 1가구 꼴로 압류신청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같은 압류건수는 2005년 데이터가 집계된 이래 가장 많았음.
美 재고 10개월째 감소에도 호재 인식..판매증가도 영향	미 상무부는 6월 기업재고가 전월대비 1.1% 감소했다고 밝혔음. 그러나 6월 기업판매가 전월비 0.9% 증가했기 때문에 내용면에서는 나쁘지 않았음. 기업들의 재고감소는 10개월째 이어졌고, 0.9% 감소를 예상한 시장의 전망치보다 감소폭은 컸음. 그러나 이같은 재고감소는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고조정에 적극 나선 점도 있지만 판매증가도 일조했음. 6월 현재 기업들의 재고량은 1.38개월분으로 작년 10월 이후 가장 낮았다. 금액으로는 1조 3,500억달러를 기록해 3년래 최저 수준임.
국제유가 이틀째 상승	국제유가가 미 달러화 약세 영향으로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배럴당 70달러선에서 거래를 마쳤음. 13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9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36센트(0.51%) 상승한 70.52달러로 마감했음.
금호종금, 뉴욕 AIG빌딩 인수 투자자 확정	미국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의 뉴욕 본사 빌딩 인수협상자로 선정된 금호종금이 재무적투자자(FI)를 모집하는 등 자금조달을 확정했음.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종금은 이번달 27일로 예정된 잔금 납입을 앞두고 우리PEF(200억원)와 금호생명(100억원), 토마토저축은행(100억원) 등을 FI로 모았고, 신한중앙회는 1,000억원을 투자하기 위한 내부 절차만 남겨 둔 상황임. 금호종금 역시 투자한도 범위내에서 참여하게 됨.
푸르덴셜증권 매물로... KB와 협상 돌입	푸르덴셜투자증권이 매물로 나왔음. 증권회사 인수를 공식화해온 KB금융지주가 접촉을 시작했음. 1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미국 푸르덴셜 그룹은 국내 자회사인 푸르덴셜투자증권 매각을 위해 최근 도이치뱅크를 매각 자문사로 선정했음. 푸르덴셜증권이 M&A 매물로 나오기는 지난 2004년 2월 옛 현투증권을 푸르덴셜이 인수한지 5년 6개월만임. IB업계에서는 이번 매각의 배경이 미국 푸르덴셜 그룹의 구조조정 일환인 것으로 보고 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